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내달 15일이면 광복 70주년을 맞는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절은 남다른다.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국토가 다시 둘로 쪼개졌다. 전범국가인 일본은 하나이고 피해 국가인 한국이 두 개로 쪼개진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광복이란 완전한 해방으로서 통일을 의미한다. 역대 정부는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논의를 진전시켜 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통일 구상을 제시했다. 남북이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실체를 인정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분단 25년 만에 남북대화가 시작

8·15 경축사에 담아야 할 내용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과 99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추진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단조를 마련했다.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대북 제의와 정책 추진 기조가 남북 관계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긴 통일 비전과 대북 제의의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축사를 통해 남북 관계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지금의 남북 관계는 불안정하고 앞날도 불투명하다. 우리 측의 거듭된 고위급 접촉 제의에도 북측은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당국 간 실무회담인 개성공단공동위원회 회의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체제 세습이나 공포정치니 하면서 모든 책임을 북한에게 전가해 봤자 남북 관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체제 유지에 자신감이 붙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기 식대로 남북 관계를 끌고 가려는 모습이다. 젊은 지도자의 독단적 방식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남북대화만을 요구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북한은 과연 미얀마·이란·쿠바와 같이

서방세계에 문호를 개방하고 변화의 길로 나갈 것인가? 체제의 보루인 핵을 포기하고 우리의 손을 잡을 것인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에 피로감이 누적되어 무기력증이 빠져 있다. 그러나 압박과 제재만으로 김정은 정권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은 피로감과 무기력증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은 남북 관계 철학을 되새겨야 한다. 남북이 함께 하는 평화통일 철학이다.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안보 부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화와 유연성이 전략적 접근의 기본이다. 물질 접촉·비공개회담·특사교환·중재자 활용 등은 과거의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협상의 ABC이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적인 지지 계층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 체제·압박·고립을 통한 북한 붕괴론은 오히려 김정은 수령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남북한 체제 경쟁은 끝난 지 오래다. 북한 체제와의 기싸움은 시간 낭비이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현실적이면서 통 큰 대북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국제사회의 지지하에 평화통일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7·4 공동성명에서부터 10·4 정상선언까지 기존 남북한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셋째, 남북한 최고지도자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광복·분단 70주년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해야 한다.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특사 교환방문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상회담 개최가 부담스러우면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과 연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제의해야 한다.

현단계 남북 관계는 불안정 속에 대립 국면을 지속할 것인지,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의 호 여사 방북·박근혜 대통령의 통 큰 대북 제의·정상회담 개최·이산가족상봉·금강산관광 재개·북미대화·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에 훈풍이 불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일방적인 8·15 행사·울지프리덤 가디언 한미군사훈련·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강화·북한의 맞대응 핵실험 등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인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달려 있다.

의료칼럼

노인 치아 교정치료



이 경 민
전남대치과병원 교정과 교수

했는데도 50~60대가 되어서 앞니가 삐뚤빼뚤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람의 구강구조 특성상 교합력이라고 불리는 씹는 힘이 전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에 걸쳐 교합력이 전방으로 작용함으로써 그 영향으로 앞니가 삐뚤빼뚤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잇몸질환과 더불어 가지런했던 앞니가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또는 앞니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잇몸병으로 인해 치아가 움직인다 하여 '병적치아변위'이라 한다.

중장년 성인의 경우 대개 병적치아 이동으로 인해 치아가 삐뚤빼뚤한 경우가 많은데 잇몸치료와 더불어 치아를 제자리에 위치시켜 놓거나 가지런히 배열해주는 교정치료가 꼭 필요하다. 교정치료를 치아를 가지런히 배열하게 되면 잇몸 질환이나 치실 사용과 같은 구강위생관리가 보다 쉬워지기 때문에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중장년 성인교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울 것도, 힘들 것도 없다. 나이가 들어 교정치료를 한다고 해서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환자에 비해 치료기간이 길어진다고나 치료효과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다

만, 대부분의 중장년 성인교정 환자들은 잇몸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정치료 전과 후에 잇몸치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치료과정 또한 일반교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환자들의 구강상태 특성상 남아있는 치아의 개수가 많지 않고 잇몸질환으로 인해 치아가 약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정력은 일반 교정치료에 비해 약하게 적용한다. 사용하는 교정장치 또한 특별히 다르지 않지만 환자의 직업이나 개인적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미적인 것으로 추천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중장년 성인들의 심미적인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회사별로 다양한 교정재료나 디자인을 가진 교정 장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교정치료를 시작 전에 담당 교정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강관리 습관이다. 이제껏 해오던 구강관리 습관을 나이 들어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남아있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부끄럽다 생각 말고 자신감 있게 활짝 웃을 수 있어 보다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치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

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교정치료 중에는 특히 더 구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 그 이유는 치아마다 부착되어 있는 교정장치 주변을 꼼꼼하게 잇솔질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잇솔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정장치 주변으로 치태나 치석이 침착될 수 있고, 나아가 잇몸에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교정치료 중에는 치료 전보다 더 세심한 구강관리가 요구된다. 교정치료 전에 이러한 구강관리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 중에도 담당 교정의사와 상의하여 구강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정치료 중에는 잇솔질 전 구강세정기로 입안의 음식물 잔여물을 먼저 제거한 다음 잇솔질을 함으로써 잇솔질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과 같은 보조적인 기구의 사용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 교정치료를 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요즘은 보다 나은 삶, 보다 자신감 있는 삶을 위해 교정치료를 받고자 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부끄럽다 생각 말고 자신감 있게 활짝 웃을 수 있어 보다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치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

社說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유치 총력 기울여야

정부의 복합리조트 선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2020년까지 외국인 카지노와 면세점 등이 갖춰진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전국에 2~3곳 조성하기로 하고 대상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적인 관심도 뜨거워 현재 9개 지역에서 34개 사업자(컨소시엄)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부는 8월말까지 대상 지역을 선정한 후 12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호남 지역에선 유일하게 전남개발공사 여수 경도를 사업 대상지로 정해 신청한 상태다. 경도에는 국내외의 3개 컨소시엄이 투자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이들 제안서를 보면 경도에 5성급 호텔과 외국인카지노, 면세점 등 쇼핑물 조성에 1조 원 가량이 투자될 전망이다. 경도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전남개발공사가 27일의

골프장과 100실의 콘도미니엄을 운영하고 있어 65만 평 규모의 사업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고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따로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이고 인근에 크루즈 전용 부두가 있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다. 연간 1천만 명이 찾는 여수와 순천만정원박람회장 등 인근 관광지와의 시너지 효과도 크다.

문제는 문제부가 복합리조트 선정의 기준으로 '수요'와 '접근성'을 중시할 경우 수도권에서 먼 경도는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수요와 접근성은 정부가 그동안 SOC 투자에 써 온 호남에는 한곳도 없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도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메르스 종식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로

정부가 28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경제 살리기 모드'로 돌아섰다. 양 시·도가 정부의 선언과 함께 일상 행정체제로 복귀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메르스 정점 지역을 유지하면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토대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선다. 우선 그동안 중단됐던 KTX(용산~광주 송정)를 이용한 서울~광주권 아트투어 남행열차를 재개하고, 일본·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와 체험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마을이 봉쇄되는 등 직접적 피해 외에도 각종 축제 행사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숙박·교통 등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

았다. 다행히 메르스 종료와 함께 휴가철을 맞아 전남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남은 지역 상의, 소비자단체, 기관·기업 등과 힘을 합쳐 전통시장 가는 날, 공무원 복지포인트 운송리사상품권 구매 운동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을 미리 집행해 자금 숨통을 틔우고, 민간단체들과 지역 알리기 등 홍보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LG화학등 대기업도 로컬 푸드 운동과 함께 내수 진척에 동참하고 있다.

집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도민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협조와 실천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차분히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기관·단체들은 각종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기업적 율 휴가는 전남의 숲과 섬으로 다녀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번 메르스 종식이 지역경제계에 훈풍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기 고

함께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경제



안 용 훈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12분 만에 모든 정전(停電)협정 조인 절차가 끝났다. 1129일간 한반도를 피로 물들인 6·25전쟁은 그렇게 휴전을 맞이했다.

올해로 6·25남침 65주년이 되었으며 또한 정전 협정이 맺어진 후로 62년이 흘러갔다. 남북한의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 살벌한 철책도, 높은 장벽도 없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USA)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지상 높이 5cm, 폭 50cm)의 콘크리트 경계석의 '민낯(鱗)'은 너무도 초라하게 서있다. 하지만 분단은 부정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다. 삼엄하게 대치 중인 남북한 경계 병력 사이에 막아선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그 벽은 절대 넘어선 안 될 사선(死線)처럼 한반도의 허리를 가른 채 깊은 침묵에 빠져있는 듯했다. 남북대결의 최전선인 이곳에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꽃 같은 시절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 북한의 젊은이들도 10년이 넘도록 군에 복무한다. 필자는 중앙부처 교육 중에 대한

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에 속한 일명 '자유의 마을'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한 것이 있다. 이 곳에 거주하는 50여 가구 2백여 명의 주민은 비무장지대(DMZ)의 눈·발을 경각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또한, 대성동 마을에는 북한의 '기정동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가계양대가 있는데 그 봉의 높이는 100m로, 가로 18m에 세로 12m인 대형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6·25가 정전이 체결된 지 62년이 됐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처칠이 남긴 말 이 생각한다. "전쟁은 커튼과 같이 미래를 가리고 있다. 커튼이 걷혀야 비로소 무대의 장면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아득한 옛날 일처럼 밀려나버린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지만, 정전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 전쟁의 의미를 경제적 차원에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16개국에서 파견된

194만여 명의 전투병을 비롯해 37개국의 의료 및 물자 지원을 받아 6·25전쟁을 치러냈으며, 지금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 무역규모 세계 8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

외세의 힘에 의해 휴전선이 그어진 지 62년이 지났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진화는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 용사들의 타할 나위 없는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필자는 요즘 젊은이들이 6·25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사료를 수집하여 책을 낼 계획이다. 그리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남침 여부를 두고 알 가알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는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 빛나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無 等 鼓		
<p>손 씻기만 잘해도 웬만한 질병의 감염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하지만 감염 예방과 소독을 목적으로 한 손 씻기가 일반인에게까지 전파된 것은 불과 100여 년 밖에 되지 않는다.</p> <p>1874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병원의 절단 수술 후 사망률은 60%에 달했다고 한다. 또 미국 남북전쟁 때 총사 사망률은 65%였는데, 총사 수술 뒤 사망률은 80%나 됐다. 이는 소독을 하지 않아 생긴 패혈증 때문이었다.</p> <p>최초로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으로 헝가리 출신 산부인과 의사인 이그나츠 필리프 제멜바이스다. 그가 살던 19세기 중반엔 의사들이 시체 해부 직후에도 아기를 받았다. 심지어 피 묻은 수술복을 명예롭게 여겨 그대로 입고 수술하는 경우도 많았다.</p> <p>제멜바이스는 1847년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산욕열(분만 후 고열이 나는 질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엔 미친 사람의 얘기쯤으로 치부됐다. 그는 부름할 때 의사의 손에 묻은 유기분해물질인 '어떤 물질'이 산모에게 산욕열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의사는 병동 출입 전 염소</p>	<p>용액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후 그가 일하는 병원의 산욕열 사망률은 2년 만에 18%에서 10분의 1 정도인 1.2%로 크게 떨어졌다.</p> <p>그는 의학적으로 획기적인 사실을 밝혀냈지만 오히려 의학계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자신의 주장이 입증된 사실을 보지도 못한 채 정신병원에서 쓸쓸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나온 수년 뒤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파스퇴르는 제멜바이스가 발견한 한 패혈증 때문이었다.</p> <p>최초로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으로 헝가리 출신 산부인과 의사인 이그나츠 필리프 제멜바이스다. 그가 살던 19세기 중반엔 의사들이 시체 해부 직후에도 아기를 받았다. 심지어 피 묻은 수술복을 명예롭게 여겨 그대로 입고 수술하는 경우도 많았다.</p> <p>제멜바이스는 1847년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산욕열(분만 후 고열이 나는 질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엔 미친 사람의 얘기쯤으로 치부됐다. 그는 부름할 때 의사의 손에 묻은 유기분해물질인 '어떤 물질'이 산모에게 산욕열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의사는 병동 출입 전 염소</p>	<p>'어떤 물질'이 세균임을 알아냈다. 1867년 엔 영국의 외과의사 조셉 리스터가 파스퇴르와 제멜바이스의 연구를 바탕으로 외과 수술 소독법을 확립했다.</p> <p>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발표했다. 전염병이 종식됐다고는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아직도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메르스에 대한 치료법이나 특효약의 개발은 미지수다.</p> <p>메르스는 떠났다. 그러나 마음 한 편에 찌뚱뚱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손 씻기만이 유일한 감염 차단책이라는 사실이다. /최희중 사회탐장 chae@</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주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p>	
<p>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p>		<p>광고개발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p>	
<p>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p>		<p>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